| 산업통상자원부 | 보 도 자 료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 |
|---|---|---|---|
| 보도 일시 | 2022. 10. 12.(수) 15:00<br>< 10.13.(목) 조간 > | 배포 일시 | 2022. 10. 12.(수) |
| 담당 부서 | 자원산업정책국<br>석탄광물산업과 | 책임자 | 팀 장 정대환 (044-203-5259) |
| | | 담당자 | 사무관 신승일 (044-203-5258) |

# 핵심광물(니켈,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호주 양국 장관,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 - 美 IRA 대응 등을 위해 호주 기업들과의 장기도입계약, 상호투자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편중과 美 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 핵심광물 부국이자 美 FTA 체결국인 **호주***와 「**한-호주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10.12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하였다.

* 全세계 생산순위 : 1위 리튬(49%), 3위 코발트(4%)·망간(12%), 4위 희토류(8%), 5위 니켈(7%)

○ 양국 장관(호주측 : 돈 패럴(Don Farrell) 통상·관광 장관)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 20여개의 참여 기업들은 **양국 기업 간 장기도입계약, 상호투자**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호주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2.10.12.(수) 15:00, 서울 포시즌스 호텔

○ **참석 : (정부)** (韓)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濠) 돈 패럴(Don Farrell) 통상·관광 장관
**(기업)** (韓) 현대자동차, SK온, 삼성SDI, 포스코인터, 고려아연, LX인터, 성림첨단산업, KSM, 자화전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광해광업공단 등
(濠) Arafura, Ardea, ASM, Cobalt Blue, Hastings Tech, Nico Resources, Renascor Resources, RZ Resources, Austrade, EFA(Export Finance Australia) 등

□ **한-호주간 핵심광물 협력**은 **배터리 핵심광물**을 **확보**하여 美 IRA 내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응**하는데 의미가 있다.

*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이 특정 비율 이상('23년 40% → '27년 80%)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것일 것을 요구 (호주는 미국과 FTA체결국)

○ 이는 **대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이 **전기차, 이차전지, 풍력·태양광**과 같은 **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필수 비타민**과 같다고 밝히면서,

* **전기차 1대의 광물 소요량**은 내연기관차 대비 **약 5배**(광물 종류*는 3배) **이상 필요**
- **(내연기관차)** 구리, 망간 ⇢ **(전기차)** 구리,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

○ **전기차·이차전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가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투자·교역 등의 협력 촉진 시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올해 2월부터 운영중인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확대, 공동 R&D 발굴, 글로벌 ESG 규범 수립**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호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 이에, 호주 돈 패럴 장관은 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환영**하고, 양국 기업들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호주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상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KOTRA, 무역보험공사와 호주의 Austrade, EFA가 각국의 투자·금융지원 제도와 실제 협력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